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촉구 건의

본회는 지난 10월 16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지난 10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및 방송매체는 홍콩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를 인용 중국당국이 지난 8월말 조류독감에 걸린 닭 오리 약 1만마리를 도살하였으나 중국당국의 지시로 이같은 발병사실이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지난 5월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으로부터 우리 정부 검역당국이 조류독감바이러스를 분리한 결과가 중국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조류독감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발병사실이 입증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당국은 우리 정부 당국의 조류독감바이러스 분리에 의한 수입중단조치와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에서 항시 자국은 이같은

질병의 발생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홍콩언론의 보도로 이같은 중국측의 주장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은폐 조작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사실로 확인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결과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지 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정부가 중국의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자행한 결과에 비취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있음을 누구보다 정부 당국 관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측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국산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 1조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재차 강력 건의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 조성키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정부당국은 어떠한 회신도 보내 오지 않고 있으며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채 임의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오리업계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이 거출된다. 본회는 지난 10월 15일 대전 유성 로얄호텔에서 제 6차 이사회를 열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 구성에 관한 안을 협의하여 부회장 및 도축장에서 전월 판매량 및 도축물량의 1원씩을 자조금으로 조성키로 의결하고 해당업 종사자들의 협조를 구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현재와 같이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의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업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정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성이 정착된 이후 조성금액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부회장에서만 일괄적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부화업계와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이후 의무자조금제가 시행되면 한군데서 거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조성금액 기준은 전월 분량물량 및 도축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중앙회에 자율적으로 납부토록하였으며 해당되는 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참여를 독려키로 하고 조성금액을 회지에 발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폐계종오리 시장 출하자제키로

폐계 종오리가 시장에 출하돼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를 떨

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폐계 종오리에 대한 시장출하를 자제키로 하

는 방안이 모색됐다.

본회는 지난 제6차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부화장에서 새끼생산을 끝내고 폐계되는 종오리는 부화장 스스로 가능한 시장출하를 자제토록하고 협회 및 관련업계 종사자는 이 폐계 종오리가 가공육으로 소비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또 부화장, 도축업자의 협조 아래 사회복지단체, 교도소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출하 돼 육용오리 고기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기로 했다.

전직회장은 기간에 상관없이 고문으로 위촉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장은 당연히 고문으로 위촉하여 협회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당초 협회 규정은 전직회장의 경우 2년간 고문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 부터는 고문으로 활동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협회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직 회장은 기간에 상관 없이 고문으로 활동하여 협회사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차이사회는 이같이 결의했다.

2002년도 협회수첩 제작기로

협회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협회수첩이 제작된다. 본회는 지난 6차이사회에서 협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도 협회수첩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화인코리아가 협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수를 제작하는 선에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고를 통해 전액 부담기로 했다.

종오리 사육과
관련된 민원회신

종란을 생산중인 종오리는 이전 이 불가능하고 폐암 처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0월 24일 종오리 사육과 관련하여 경기도 일산의 송학농장에서 요청한 종오리 사육과 관련된 민원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란중인 종오리를 이전하는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산란이 중지되며 산란이 재개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 폐암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또 지난해 종란의 유통가격은 3백50원, 새끼오리 평균가격은 658원, 산란종오리의 수당 거래가격은 3만1천7백원에 달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광주전남도지회에
협조공문

본회는 지난 10월 30일 광주전남도지회 가격조절위원회 개최시 중부권지역 주요 부회장 및 사육농가,유통업체를 참여 시켜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 결정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협의된 것과 같이 광주전남도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격조절위원회 개최시 중부권지역 부회장 3개 업체, 사육업자 3개농장, 유통업체 1개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조절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협조공문에서 지난 6차 이사회에서

가격결정시 중부권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새끼오리 가격
5백원으로 재조정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 10월 9일 가격조절을 위한 운영이사회를 열어 종전 6백원으로 인상된 새끼오리 가격을 5백원으로

재 인하키로 했다. 이날 운영이사회는 유통업체가 육용오리 가격이 3천5백원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끼오리 가격만

6백원으로 인상한 종전 운영이사회의 결정이 잘못 되어 새끼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부화업계는 시행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재조정하기보다 한달간 시행한 이후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 이사들은 육용오리 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낮은

시세에서 유지되고 인상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새끼오리 가격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새끼오리 가격을 5백원으로 인하되어 육용오리 출하 일령이 낮아진대거나 오름세로 돌아서면 즉각적으로 새끼오리 가격을 인상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의 했다.

충북지회 월례회의 개최

충북지회(지회장 정현철)는 지난 10월 22일 월례회의를 열어 회원간

의 친목도모 및 업계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오리고기 소비확대 필요성 제기

충남지회(지회장 민철기)는 지난 10월 25일 월례회의를 열어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월례회의 참석회원들은 현재 오리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회 차원의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

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지회에 배분된 소독약이 사육농가들이 수령해 가지않아 상당부분의 소독약이 재고로 쌓여있다고 하며 이 역시 배분 문제를 중앙회에 건의하여 소진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경기북부지회

경기북부지회(지회장 박한동)는 지난 11월 6일 양주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양주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경기북부지회는 정육화된 오리고기 100마리분을 슬라이스한 것을 즉석에서 구이하여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식케 하는 시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무료시식회에는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기라는 새로운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오리고기가 결코 비싼 고기가 아니라는데 초점을 두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오리고기에 대한 대소비자 저변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처음 개최된 지회 행사임에도 오리고기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다양한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이외에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오리고기 소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회 주요임원들의 가족들이 총 동원돼 다소 추운 날씨에도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를 흐뭇하게 했다.



광주전남도지회

본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 10월 4일 가격조절위원회를 열어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가격조절위원회는 중부권지역 부화장들과 유통업체들이 참석하여 현재의 육용오리, 새끼오리가격에 대한 인상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유통업체와 부화장과 의견차이를 보여 유통업체간 육용오리 도매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 후 새끼오리 가격인상에 대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날 가격조절위원회는 새끼오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부화장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나 현재의 육용오리 가격인상 이후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끼오리 및 육용오리 가격인상

본회 광주전남도지회 운영이사회는 지난 10월 6일 가격조절위원회를 열어 육용오리 수당가격을 4천2백원, 육용오리 kg당 가격을 1,300원, 육용오리 2kg지육기준 가격을 4천3백원, 새끼오리 가격을 6백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가격추이를 보아 25일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20여명이 참석한 운영이사회는 오리고기 연말 성수기에 다소 소비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을 종전에 비해 새끼오리는 1백원, 육용오리는 2백원 인상키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소비홍보자조금 10월분 납입업체 현황
 춘양부화장(대표:조징): 월 생산량- 18,000수, 금액-20,000원
 화인 월 생산량 495,648수, 금액-495,648원